

추석 명절 추모 예배 순서

주후 2022. 9. 10(토) 아침

사회 | 담당자

묵도	고_____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다함께
찬송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가 480장)	다함께
기도		가족중
성경봉독	요한복음 7:37~38	가족중
추모의 말씀	초막절의 기억	사회자
찬송	나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가 246장)	다함께
추모사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중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

추모의 말씀(Message)

- 초막절의 기억 (요한복음 7:37-38) -

우리나라의 추석과 매우 유사한 성경의 절기가 있다면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우선 초막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해외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7장 2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인은 한 주간 정도를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날이 우리의 추석절과 유사한 것은 우선 이 시기가 농사철을 지나고 올리브 포도 등을 수확한 후 곡식을 거두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그 어려운 광야의 여정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셔서 생존케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천막생활을 하던 것을 기억하며 수컷(succot)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임시 텐트를 집 옆에 만들어 치고 이웃과 친척, 가족들이 텐트를 서로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며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격려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려면 지나간 날들의 기억과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추석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추모하는 이 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 먼저 가족과 함께 하던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18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마지막 29절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는 많은 고난도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사랑이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누려온 모든 행복한 기억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2.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편 118편 14절을 소리 높여 읽어 보십시오. “여호와 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마침내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3. 영원한 천국에서 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초막절 행사의 절정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생수를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넘치도록 붓는 일입니다. 바로 그 물이 재단에 부어질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 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부의 목마름, 권력의 목마름, 성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그러나 어떤 목마름도 인생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 이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만족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곧 완성된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1-2) 이 치료의 은혜를 맘껏 누리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거기서 기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의 기쁨의 만남을 사모하며 남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스펠로 소개되어 이 땅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준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 246장) 아멘!